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떠날 때는 뒤 돌아보고 또 돌아보자

소적 시간적 인생이 어느 곳에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며 사는가의 삶이다.

인생의 삶은 연속되는 장소 시간 업무와의 만남과 떠남 속에서 산다. 새들은 앉았다 떠날 때는 앉았던 곳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정리를 잘한 후 떠나며 떠난 후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다. 머물고 있던 곳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남기고 빠진 것이 없이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가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챙기는 것이 있다. 열쇠, 돈과 증명서 등 지갑, 휴대전화기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챙길 것을 빠뜨렸을 때는 되돌아와 챙기고 가야 한다. 우리가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를 탔을 때 종착지에 가면 안내방송으로 앉은 자리에 빠진 것이 없나 잘 살펴보고 떠나란 방송을 한다. 무엇인가 빠뜨려 놓고 떠난 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후회 없이 살려면 시간상으로는 과거를, 장소적으로는 현재 머무는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떠나야 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뒤 돌아보고 빠진 것이 없어야 하며 직장을 옮길 때는 인적 물적 주변 정리를 잘하고 나 떠날 때 문에 생긴 쓰레기는 치우고 내 것은 챙겨 떠나야 한다. 한번 머물렀

던 곳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하며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충고다.

앞으로 나갈 때는 앞을 가까이도 보지만, 멀리 봐야 하는 것을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주행할 때 주의 사항으로 가르치고 있다. 멀리 보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보고 운전해야 한다. 날로 변하는 국제사회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가는 우리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멀리 보며 살아야 한다.

현재는 가진 자이지만, 먼 훗날을 보면 못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어렵고 안 되는 일도 멀리 보면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일을 시작할 때는 멀리 끝을 보며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꾸준히 성실히 실천하며 가야 한다. 인생을 멀리 보면 끝점은 너나 나나 죽음이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인생을 멀리 보려면 나보다 연상인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나이의 나를 예측해 보면서 오늘의 시점에서 준비하고 앞을 멀리 보는 삶이 돼야 한다. 인생 나그네는 머물렀던 곳에서 떠날 때는 다음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치우고 빠진 것이 있나 챙기는데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며, 앞은 멀리 보고 뒤돌아보지 말며 힘차게 전진하자.

인생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으나 가진 자가 되려는 부단한 욕구는 성공으로 욕구를 충족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지만, 그 소유가 종말에는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다 간다.

남기고 간 것이 유산이며 그 유산은 물적 재산과 지식능력 정보의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의 유산이 멀리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며 대책을 세워 정리해야 한다. 물적 유산인 돈과 재산이 내 인생의 종말에 누구의 소유가 되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미리 유서로서 상속자를 정해야 한다.

무형의 재산인 지식정보기능은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의 종말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죽기 전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 전해주어야 한다. 인생을 멀리 보면 끝점은 너나 죽음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보람 있는 삶이란 많이 가진 자가 되는 즐거움에서 살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보람 느끼며 살고, 인생의 삶을 마친 후 내세의 준비까지도 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다.

인생 나그네는 머물렀던 곳에서 떠날 때는 다음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치우고 빠진 것이 있나 챙기는 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며, 앞은 멀리 보고 뒤돌아보지 말며 힘차게 전진하자.

독자기고

일단 시작부터 하자

국 중 균
광주서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한 일과 목표가 설정되면 과감하게 시작해야 후회가 없다.

그래도 뒤늦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일에 도전하고 있어 그래도 성취될 때까지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연속이지만 이루고 나면 그 성취감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지고 진한 꿀 같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본인이 지금 현실에서 설정한 목표에 시작을 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계획부터 실천하기까지 나아진 점은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일을 미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자기계발도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듯이 옷을 고르는 것과 같다고 하며 누군가에게는 너무 잘 어울리는 옷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맞지 않는지 모를 일이 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본다는 열정과 각오로 도전해 보고 항상 마음속으로 외쳐라 난 할 수 있고, 이를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모두 그 시간을 기다리면 희망이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에 망설일 때가 대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다 보면 어느새 시간과 세월만 흘러 보낸다.

어떤 일이든지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만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지만 멈추고 생각의 시간이 길어지면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선다.

무엇보다 과감한 시작이 중요하며 책상 앞에 앉아 이제부터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라.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만 하고 여간해서는 시작하지 않은 것은 그 안에 게으름이 숨어 있고 두려움이 있기에 모두가 힘들어 하는 주요 원인이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마감일이 다가오면 이번에는 시간이 모자라 초조해 하면서 정신뿐 아니라 육체까지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간다.

모든 것은 본인의 마음먹기 달렸으며 이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취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만 맴돌고 있다. 젊음이 있을 때는 자기가 계획

민선 8기 지자체 단체장이 지난 1일부터 부임하게 됐다, 그에 따라 공직 사회에서는 떠나야 할 사람과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생겼다. 떠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떠날 때는 뒤 돌아보고 또 돌아보자'라는 말을 명심하고 후회 없이 떠나야 한다.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는데 사는 장소적 인생, 사는 시간적 인생, 무엇을 하는가의 업무적 인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며 고향에 머물기도 하지만, 타지방으로 타국으로 옮겨 다니며 산다. 시간적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직선 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생의 위치가 되겠으며, 업무적 인생이란 장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 | | | | | |
|--------|-----|------|----------------|-----|---------------|
| 회장 | 황일봉 | 대표전화 | (062)-373-6448 | FAX | (062)227-0084 |
| 사장 | 이문수 | 광고 | (062)-373-6448 | 구독료 | 월 10,000원 |
| 발행·편집인 | 이기영 | 등록번호 | 광주 가69(일간) | 인쇄처 | (주)남도프린테크 |
| 부사장 | 기백관 | | | | |
| 취재본부장 | 서용운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